

사건으로 보는 옛이야기

11주. 문학속 사건들 1차시. 가족사이야기 1: <장화홍련전>

학습목표

1. 역사 속 실화 <장화홍련전> 이야기를 통해 당대를 이해할 수 있다.
2. <장화홍련전>의 갈등 문제를 현대 사회의 가정 문제로 치환해 해석할 수 있다.

<장화홍련전> 작품 개관

- 작자·연대 미상의 고전소설, 가정소설
- 한글본, 한문본, 국한문본이 모두 전함
- 40여종의 이본이 전함
- 효종연간(1650년대)에 전동흘(全東屹)이 평안도 철산 부사로 가서, 배좌수의 딸 장화와 홍련이 계모의 흥계로 원통하게 죽은 사건을 처리한 사실담을 소재로 쓴 이야기



출처: YES24

🔍 <장화홍련전> 작품 개관



한글본.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



<장화홍련전> 줄거리

세종조에 평안도 철산에 배무룡이라는 좌수가 살았다.

그들 부부에게는 장화와 홍련이라는 예쁜 두 딸이 있었다.

홍련이 다섯 살 되던 해, 부인이 죽게 된다.

배좌수는 허씨를 재취로 맞아들여 삼 형제를 낳는다.

그런데 허씨는 자신의 소생이 생기면서 전실 자식 장화와 홍련을 학대하기 시작한다.



<장화홍련전> 줄거리

시간이 흘러 장화가 정혼을 하게 된다.

배좌수는 허씨에게 '혼수를 많이 장만하라'고 한다.

허씨는 이 말에 재물이 축날 것이 아까워 흥계를 꾸며 장화를 죽이고,
홍련까지 물에 빠져 죽게 한다.

그로부터 그 못에는 주야로 곡성이 난다.

마침 정동우라는 사람이 이 고을 부사로 자원하여 장화홍련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계모를 능지처참하여 한을 풀어 준다.

역사적 사실

계모는 새끼 쥐의 껍질을 벗겨 낙태한 태아처럼 만든 다음 장화의 이불 속에 몰래
집어 넣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방에 들어와 태연하게

“장화야 무슨 병이 있어 이렇게 곤히 자느냐?”며 장화를 깨웠다.....“네가 양반집
여자로써 이처럼 음탕한 짓을 하였으니 정말 놀랍구나”라고 말하였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란 장화는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전기략, <<가재사실록>>, 1865년)

<장화홍련전>은 실화!!

실제 사건 <장화홍련전>은 효종대 전동흘(1610~1685)이 평안도 철산 부사로 재직하던 중에 겪은 일로, 전동흘 8대손인 전기락의 『가재사실록』(嘉齋事實錄)에 실려 있다. 전동흘은 전라도 출신의 무장으로, 병자호란 때에는 의병을 일으켜 남한산성까지 인조를 모시고 내려가는 등 국가에 대한 의리를 철저히 지켰던 인물이다.

.....철산 부사로 파견된 전동흘은 장화와 홍련의 죽음에 얽힌 사건을 해결하였으며, 그런 연유로 부민들은 그를 '神明철인'(神明鐵人)이라 부르고 공덕비를 세웠다고 한다.

17세기 '가정'과 '사회제도'

- 축첩제(후처제): 본처 외에 첩을 두는 것
- 적서 차별: 적자와 서자를 구별하는 것
- 가부장제:가장이 최고의 가장권을 행사

17세기 '가정'과 '사회제도'

- 조선 초기 혼인제도 :
 - 축첩제, 다처제가 인정
 - 본처와 첩 자식 간의 차별이 없음
- 태종 13년(1413년) '중혼금지법' 마련
 - 처첩의 구별
 - 적서 차별

* 본처인 첫 부인을 제외한 모든 부인은 '첩', 처와 첩, 적자와 서자 사이의 차별



<장화홍련전> 이해하기

<장화홍련전>속 갈등 이해

- (1) 인물들의 갈등양상, 갈등 원인 찾기
- (2) 인물들의 갈등 해결 방법 찾기
- (3) <장화홍련전> 갈등의 근본 문제 찾기

<장화홍련전> 정리

- <장화홍련전>이 현대사회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생각해 봅시다.
- 건강한 가정을 위한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각각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장화홍련전>의 문학적 의미

“한국 사회에서 계부모와 계자녀 간의 부적응 비율이 상당히 높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장화홍련전>, <콩쥐팍쥐> 등의 전래동화의 영향이 크다는 점이다.”

공진숙, 유안진, <전래동화와 대학생의 편견 형성 판단>, <<한국가정관리학지>> 12,
한국가정관리학회, 1994.)